

청당동유적의 편년과 변천양상에 대한 고찰*

權鶴洙**

I. 머리말	1. 토기의 변화
II. 청당동 유적의 발굴개요	2. 칠족의 변화
III. 편년 방식의 검토	3. 토광묘 구조의 변화
IV. 토기의 분류	4. 토기의 부장위치
1. 원저단경호	5. 원저단경호의 부장량
2. 평저발(平底鉢)	6. 위계구조
V. 토광묘의 편년	V. 맺음말
VI. 분기별 변천 양상	참고문헌

I. 머리말

최근까지 원삼국시대의 연구는 영남지역의 자료를 주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 현상의 배경에는 원삼국시대의 자료가 주로 영남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유적의 규모나 유구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이 작용하였다. 물론 영남지역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원삼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의 원삼국시대를 이해하는데 기여한 바가 많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한반도 전역에 걸친 원삼국문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 이 논문은 1999년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겸 중원문화연구소 선사연구부장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 지역의 문화가 상세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은 영남지역 원삼국 문화 연구의 진전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중서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유적들의 수효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유적별로 발굴된 유구의 수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절대적 자료의 증가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원삼국문화, 그리고 원삼국시대에서 백제시대로 넘어가는 변천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申鍾煥 1997; 咸舜燮 1998; 李南珪 1998; 成正鏞 1998).

천안, 공주, 청주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은 북한 지역과 영호남지역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지역문화의 복원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삼국시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지역의 유적으로는 천안 청당동, 공주 하봉리, 진천 삼용리와 산수리, 청주 송절동, 청원 송대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천안 청당동유적은 조사도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고, 각종의 유물들이 풍부하게 출토되었으며, 시기폭도 넓은 편이어서 원삼국시대의 편년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당동유적의 발굴결과는 최종 보고서에서 종합 정리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유물과 유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청당동유적은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유적이기 때문에 발굴된 자료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유적 하나에 대한 시각을 넘어서서 중서부 지역 문화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의 양상이나 변화과정에 관한 거시적 논의는 여러 유적의 발굴결과를 비교하고 종합한 결과로 나온 것이므로 유적별 자료의 분석결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글은 원삼국문화의 연구에서 청당동유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 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의 분류와 편년, 그리고 변천양상 등을 다시 분석해 본 내용이다.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기존의 이해와 부합되는 점도 있지만, 다른 면도 보여준다. 이 글은 거시적인 문화 해석 보다 기본적 자료의 특성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주로 편년의 설정, 그리고 유물과 유구 유형의 시기별 변천 양상을 추출하는데 주력하였다.

II. 청당동 유적의 발굴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청당동유적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그간 미흡했던 중서부지역 원삼국문화의 연구가 활기를 갖게 되었고, 이어서 청주 송절동유적을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주변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주민의 신고로 알려진 이 유적에 대한 1차 발굴은 1990년에 시작되어 2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1991년의 2차 발굴에서는 3기의 토광묘, 1992년 3차 발굴에서는 7기의 토광묘, 1993년 4차 발굴에서는 10기의 토광묘, 1994년 5차 발굴에서는 2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여기에 2차 발굴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보고된 25호를 합치면 모두 25기의 토광묘가 발굴된 셈이다. 이 연차 조사의 보고서는 매년 꾸준히 간행되어 발굴 내용이 신속히 알려졌다(徐五善·權五榮 1990; 徐五善·權五榮·咸舜燮 1991; 徐五善·咸舜燮 1992; 韓永熙·咸舜燮 1993; 咸舜燮·金在弘 1995).

이들 원삼국시대 토광묘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22기 중 19기는 목관묘이고, 3기는 목곽묘였다. 목관과 목곽의 흔적을 통해 매장칸의 형태와 관을 제작하는 방식도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분묘에는 주구가 부설되어 있었다. 부장품은 피장자의 머리부분과 발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토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토기는 회백색 연질계통의 원저단경호가 절대량을 차지했고, 이외에 적갈색 연질계통의 심발형토기가 있었다. 토기류 외에도 유리와 마노제 구슬류, 청동제 마형대구, 환두대도, 철모, 철촉, 철부, 철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구조적 특징, 부장량과 부장위치, 유물의 형태적 특성들은 상세히 분류되었고, 상호 연관관계도 검토되었다. 유구의 상대편년은 유물의 부장량과 부장위치를 기준으로 3단계의 분기로 나뉘어졌다. 절대연대의 경우는 진천 송두리, 경주 조양동, 부산 노포동 같은 중서부 혹은 영남지역 유적의 추정 연대, 그리고 『三國志』韓傳의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I 단계는 2세기 후반, II 단계는 3세기 전반, III 단계는 3세기 중엽에서 후반으로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유구의 특징과 부장품의 질과 양을 기반으로 시기별 위계 양상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위계의 수는 가장 세분했을 때 3계급에서 4계급을 거쳐 5계급으로 변하여 점차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Ⅲ. 편년 방식의 검토

대부분의 발굴보고서가 그러하듯이 청당동 보고서에서 편년은 상당히 중시되었다. 청당동유적이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유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편년의 중시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편년방법 자체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편년은 유물의 양식적 분석을 통해 수립하는 경향이 많다. 청당동 보고서의 경우도 원저단경호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년의 기준이 토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편년이 결정되어 있어야 논의할 수 있는 시기적 변천양상이 토기가 검토되기 이전인 고찰의 첫 부분, 즉 유구의 분석에서 벌써 나타나 있다. 분묘의 구조적 속성들을 분석한 내용으로 보이는 삼도나 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유구의 속성들이 편년체계의 설정에 깊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토광묘의 구조적 특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묘광의 장단비가 전기에는 4:1이었다가 3:1을 거쳐 후기에는 2:1로 바뀌어가며, 묘광의 깊이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깊어지고, 묘역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咸舜變 외 1995, 105쪽)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원저단경호의 각 형식의 개략적인 특징을 검토한 다음 앞에서 설정하였던 상대편년의 각 단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고(咸舜變 외 1995, 125쪽) 언급한 것을 보면 상대편년은 토기의 분석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편년이 처음으로 뚜렷이 나타난 표(咸舜變 외 1995, 117쪽, 표 6)를 보면, 이러한 편년의 1차 기준과 2차 기준이 각각 원저단경호의 부장량과 토기의 기종별 부장위치를 알 수 있다.

종합보고서에서 원저단경호의 부장량은 I 형식(1점)과 II 형식(다수)으로 나뉘었고, 부장위치의 경우는 A형(원저호는 발쪽, 평저발은 머리쪽), B형(모두 머리쪽), C형(모두 발쪽), D형(원저호는 장축을 따라 나란히, 평저발은 머리쪽 혹은 발쪽)으로 나뉘었다. 편년결과에 따르면 I 단계에 해당하는 분묘는 3호를 비롯한 10기로서 IA, IB, IC의 유형을, II 단계에는 1호를 비롯한 7기의 토광묘가 IB, II B, II C, II D의 유형을, III 단계는 13호를 비롯한 7기의 토광묘가 IB, II C, II D의 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보고서에서는 원저단경호의 부장량과 부장위치에 의해 편년안이 만들어졌고, 토기 속성의 변화 양상은 이 편년안에 대입시킨 결과로 되어 있다.

단경호의 부장량과 부장토기의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속성의 종류가 많아서 변화가 더욱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는 토기의 형태보다 유물의 부장량과 위치가 중시된 이유가 불확실하고, 그 중에서도 토기의 부장량이 1차 기준이고, 토기의 위치가 2차 기준이 된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 기준에 기

반한 종합보고서의 편년결과는 [5, 6, 8, 9, 10, 11, 12호]→[1, 2, 14, 18, 19, 20, 24호]→[13, 15, 16, 17, 21, 22, 23호]로 되어있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결과는 [5, 6, 10호]→[8, 9, 12, 17호]→[1, 2, 13, 14, 15, 16, 18, 19, 22, 24호]→[20, 21호]가 더 적합해 보여 보고서의 결과와 상충되는 면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청당동 유적의 편년기준을 시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의 형태 속성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당동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유구의 편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중에서 출토량이 가장 많고, 시기적 변화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속성을 많이 갖춘 토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고서의 편년안은 이 글에서 시도한 분석결과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보고서의 편년안이 무덤의 구조적 특징, 부장품의 양과 위치 등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저단경호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IV. 토기의 분류

청당동에서 출토된 토기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원저단경호와 평저발로 구분된다. 이들 두 기종은 생김새와 재질에서 이질적인 면을 많이 보이지만, 원삼국시대의 유적에서 흔히 공반되어 나오는 토기들이다. 이번 분류는 편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저단경호와 평저발에 대해 가급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정도가 크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1. 원저단경호(圓底短徑壺)

많은 원삼국시대 유적에서처럼 청당동 유적에서 절대량을 차지하는 토기는 원저단경호이다. 보고서에서 원저단경호에 대한 형식분류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 1차 보고서에서는(徐五善 외 1990) 몸체와 경부의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다. 1류는 편구형의 몸체에 외반 구연을 지닌 것, 2류는 편구형 몸체에 직립 경부에서 구연이 외반해 가는 것, 3류는 경부가 거의 없듯이 짧고 외반하는 구연을 보이는 것이다. 그 후 원저단경호의 수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 요소가 나타남에 따라 제 4차 보고서에서는(韓永熙

외 1993) 4형, 2아형으로 구분하였다.

원저단경호의 가장 상세한 분류는 종합보고서에서 이루어져 크게는 4가지, 세부적으로는 6가지로 형식이 설정되었다(咸舜燮 외 1995, 119-131쪽). 이 중에서 I 형식은 동체에서 뚜렷이 꺾이는 경부를 지녔지만, 부드럽게 외반되는 경부와 구연의 구별이 어려운 종류이고, 몸체는 편구형이다. 단 2점만 출토되었다. II형식은 동체와 경부의 구분이 명확하고, 구연부도 경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다시 2개의 아형으로 세분되었다. IIA형식은 동체 높이의 1/4 이상인 경부, 수직 혹은 내경 경부, 약간 외반된 구연, 구연 안쪽의 정면흔적이 없거나 미약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IIB형식은 분류대상 61점 중 40점을 차지하며, 전체 시기에 걸쳐 출토되어 상대편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 형식은 동체 높이의 1/4 이하인 짧은 경부, 외반된 경부, 약간 외반되거나 수평에 가깝게 꺾여진 구연을 특징으로 한다. III형식은 어깨가 뚜렷하지 않은 광구호이다. 이 형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형식의 특징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IV형식은 경부의 휨이나 꺾임이 없는 직구호이다. 이것은 다시 경부가 내경한 IVA형식과 외반한 IVB형식으로 구분되었다.

보고서에서 이들 형식을 편년과 관련시켰을 때, I 단계에서는 IIB와 IVB형식만이 있고, II단계에서는 III형식을 제외한 모든 형식, III단계는 IIA, IIB, III, IVB형식이 존재한다(咸舜燮 외 1995, 123쪽, 삽도 14). 이에 따라 원저단경호의 상대편년에서는 전체 시기에 출토되는 IIB형식의 세부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변하는 속성으로 구연의 외반정도, 구연 안쪽의 오목한 조정흔적이 주목되었고, 부차적으로 동체부의 형태와 무늬의 종류도 거론되었다(咸舜燮 외 1995, 126-129쪽).

이상과 같은 원저단경호 속성의 상당부분은 편년과 관련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IIB형식에만 적용되었던 구연부의 속성들을 모든 원저단경호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진다고 여겨지는 다른 속성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글에서 편년을 위한 원저단경호의 형식분류 기준으로 고려된 속성은 동체부의 형태속성 2가지(동체부의 부푼 정도, 최대경의 위치), 경부의 형태속성 2가지(길이, 넓은 정도), 구연부의 형태속성 2가지(꺾인 정도, 내면의 오목한 정면 여부) 등 모두 6가지이다. 이 외에도 경부의 곡률, 경부의 꺾인 각도, 표면의 무늬종류 등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 결과 얻어지는 분류체계에서 이들 각각의 속성들이 다른 속성들과 관련되어지는 상관관계의 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동체부의 형태는 부푼 정도의 경우 동체부의 최대경을 동체부의 높이로 나눈 값을 측정하여, 그 크기에 따라 [구형]-[편구형]-[심한 편구형]으로 서열화시켰다. 최대경의 위치는

최대경이 자리잡은 높이를 동체부의 전체높이로 나눈 값을 측정하여 크기에 따라 [중앙]-[상부]로 구분하였다. 경부의 특성 중 길이는 경부의 높이를 동체부의 높이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짧은 목]-[긴 목]으로 구분했다. 목의 넓은 정도는 어깨의 넓이와 관련된 것으로 경부 하단의 직경을 동체부 최대경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좁은 목]-[넓은 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연부의 특징으로는 꺾여진 각도에 따라 [꺾이지 않음]-[약간 꺾임]-[많이 꺾임]으로 구분하였고, 구연부 안쪽의 오목한 정면 여부에 따라 [편평 구연]-[오목 구연]으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속성이 6종류이고, 각 속성마다 측정값 혹은 상태가 2~3가지가 되므로 계량적 분류 방법인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속성의 입력은 속성 값의 종류만큼 변수를 만들어 해당되는 변수에 1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기했다. 토기들간의 상이도는 이들 변수 값의 차이를 합친 값으로 측정하였고, 군집방법은 Ward method를 이용하였다. 최대경의 위치처럼 분석된 속성 중에는 전체 형태가 복원되어야만 파악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부가 결실된 토기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51점의 원저단경호가 분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묶여진 군집상태를 살펴본 결과 결합지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인 6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그림 1, 표 1).

원저장경호 I형식은 동체부가 약간 혹은 상당히 편구형이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으며, 목은 길고 좁은 편이고, 약간 외반하는 구연을 가졌고, 구연 안쪽의 정면흔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다. II형식은 동체부가 약간 혹은 상당히 편구형이고, 최대경은 위쪽에 있고, 목은 긴 편이고, 구연은 약간 혹은 상당히 외반하였고, 구연 안쪽이 편평하다. III형식은 동체부가 약간 편구형이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으며, 목은 넓은 편이고, 구연은 약간 외반하고, 구연 안쪽이 오목하다. IV형식은 동체부가 구형이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으며, 목은 짧은 편이고, 구연은 약간 혹은 상당히 외반하고, 안쪽이 편평하다. V형식은 동체부가 약간 편구형이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으며, 목은 좁고 짧은 편이며,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다. VI형식은 동체부가 약간 편구형이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으며, 목은 짧고 좁으며, 구연은 상당히 외반하였고, 구연 안쪽이 오목하다.

2. 평저발(平底鉢)

평저발은 출토량도 적고, 형태가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저발은 고려할 수 있는 속성의 수효가 작고 분류체계가 단순할 수밖에 없다. 종합보고서에서도 평저발에 대해서 뚜렷한 형식분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높이와 구경의 비율

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가정하였지만,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일단 18점의 평저발을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고려한 속성은 전체 형태의 세장된 정도와 동체부의 부푼 정도였다. 전체형태는 높이를 구경으로 나눈 값에 따라 납작한 것, 보통, 세장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동체부의 부푼 정도는 직선적인 것과 약간 부풀었다가 좁혀지는 것으로 양분하였다. 이 경우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어쨌든 군집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그림 2, 표 2). 수치의 입력방법과 군집방법 등은 원저단경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

평저발의 I 형식은 세장되고 배가 약간 부풀은 유형이고, II 형식은 높이가 낮고 동체부가 직선적인 형태를 띄며, III 형식은 높이가 중간에 속하고 몸통이 직선적이다. 그런데 동체부의 부푼 정도는 세장 정도만큼 뚜렷하게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장 정도만을 가지고 분류한 결과와 차이가 없다.

V. 토광묘의 편년

청당동 토광묘의 편년은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속성에 따라 분류된 원저단경호의 형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평저발의 경우 변화속성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의 유구에서 출토된 수량이 한 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출토된 유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편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저단경호만을 기준으로 하여 편년을 한 후, 원저단경호와 평저발을 함께 고려한 편년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25기의 토광묘 중 일차적으로 편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형식 이상의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8기에 불과했다(2, 13, 14, 15, 16, 20, 21, 22호). 이들 8기의 분묘에 대해 원저단경호의 형식별 존재유무 자료를 토대로 다차원척도법과 순서배열법을 적용하였다. 다차원 척도법의 이차원 평면에 나타난 분묘들의 분포에는 약간 휘어지는 포물선을 상정할 수 있다(그림 3). 이 포물선을 기준으로 한 분묘들의 상대 위치는 순서배열법에 의한 분묘들의 상대위치와 동일하므로(그림 4), 두 방법에 의한 결과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상대편년상의 선후관계를 정하기 위해 양극단에 놓인 분묘들의 출토 토기를 검토했을 때, 13호와 15호의 출토품들이 4세기대의 일반적인 원저장경호의 형태에 가까운 점으로

보아 시간의 방향은 20호에서 13호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편년은 20호→14호→2호→21호→22호→16호→15호→13호가 된다. 분기의 설정에는 다차원척도법의 결과가 유익하다. 그림 3에서 보면 14호·2호 집단과 21호·22호·16호·15호·13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러므로 2호와 21호 사이를 경계로 2개의 분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순서배열법의 결과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데, 특히 21호, 22호, 16호, 15호, 13호 집단 내에서의 상호간 높은 유사성이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얻은 후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 평저발을 추가하여 다차원척도법과 순서배열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원저단경호만을 자료로 하였을 때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평저발의 형식들이 편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원저단경호 중 한 가지 형식만 출토되어 앞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분묘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기본 원칙은 특정 분묘의 편년적 위치는 그 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식이 존재했던 기간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가장 유사한 토기가 출토된 분묘에 근접시키는 것이었다(그림 5).

먼저 5호, 6호, 12호의 원저단경호는 모두 IV형식이다. IV형식은 20호와 14호에서 출토된 바가 있어 이들과 같은 시기에 속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5호, 6호, 12호의 출토품은 동체부가 길고 구연의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로서 상호 유사성이 높고, 다른 형식들이 공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고분들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묶어 20호와 14호보다 앞선 시기에 편성하고, 이 시기를 I기로 설정하였다.

18호, 19호, 24호에서는 모두 II형식만 출토되었다. 이 중 18호^a, 19호^a, 24호^b는 II기의 20호^a, III기의 21호^f와 유사하다. 그리고 18호^j와 19호^b는 II기인 2호^b와 같이 목이 길고 휘지 않았으며, 동체가 편구형이면서 최대경이 윗쪽에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18호, 19호, 24호는 20호와 21호의 사이이면서 2호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호는 18호 등과의 유사성 보다 2호와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18호, 19호, 24호는 14호와 2호 사이에 편성하였다.

1호에서는 I형식이 출토되었는데, I형식은 21호~13호의 III기에 속한다. 그런데 목의 상대길이와 편구형의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식에 속하게 되었지만, 1호 출토품은 형태상으로 II기의 14호^c(V형식)와 매우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1호는 III기 중의 빠른 시기로 21호 앞에 놓았다.

17호와 23호에서는 VI형식만 출토되었다. VI형식은 III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17호 출토품과 23호^a^b는 VI형식 중에서도 15호^b, 16호^g와 유사성이 높다. 그러므로 17호와 23호의 위치는 15호와 16호 사이로 정했다.

9호에서는 V형식 1점만 출토되었는데, V형식 중 16호㉔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16호에 인접한 곳 중에서 V형식이 16호보다 앞선 시기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6호 앞에 편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대편년이 가능한 18기의 분묘들은 세 개의 분기로 나눌 수 있다(그림 6). 이 중에서 I기에 속하는 것은 5호, 6호, 12호로서 수효가 가장 작다. II기에는 20호, 14호, 2호를 대표로 하여, 18호, 19호, 24호가 속한다. III기에 속하는 분묘는 21호, 22호, 16호, 15호, 13호를 중심으로 1호, 9호, 17호, 23호 등 모두 9기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3단계 편년과 비교하면, III기초에 있는 1호가 보고서에서는 II기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III기의 9호가 보고서에서는 I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 한편 II기를 전후반으로 나눈 종합보고서의 4단계 편년과 비교하면 II기의 전반이라 할 수 있는 14호가 종합보고서에서는 II기 후반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추가로 나타나지만 이것 역시 큰 차이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상대편년의 결과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의 분석은 편년의 근거가 명시된 점, 형식과 속성들의 상대편년이 제시된 점, 편년이 가능한 토광묘의 절반을 차지하는 III기 고분들의 분기 내 서열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분묘의 편년결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토기속성의 변화양상, 무덤구조나 유물 부장방식 등의 유형 변화가 다음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종합보고서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종합보고서에서 제시된 이들의 변화양상이 분묘의 편년결과를 통해 귀납적으로 확인된 것이기 보다 그러한 변천유형을 미리 상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당동유적의 상한은 청당동 I기의 원저단경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원저단경호의 기본 형태가 갖추어졌지만, 구연이 편평하고 밋밋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제된 원삼국시대 후기의 원저단경호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I기는 1세기에서 2세기전반까지로 파악되는 원삼국시대 전기 중의 약간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절대연대는 2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I기의 절대연대에 대해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토기들이 출토된 진천 송두리유적을(車勇杰·趙詳紀 1991) 고려하여 송두리보다 늦은 2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咸舜燮 외 1995). 이는 아직은 불분명한 충북지방의 원삼국시대 전반부의 토기상이 진천 송두리 출토품과 동일했을 것이라는 입장과도(申鍾煥 1997, 37쪽) 맞물려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송두리의 경우를 국지적인 양상으로 보는 견해와(崔秉鉉 1998, 136쪽) 대립되는 바이다. 송두리유적의 발굴상태를 고려해 볼 때 물론 송두리 유형의 토기가 그 유적에서만 사용되거나 매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

라서 송두리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그 분포범위를 청당동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청당동 유적의 하한도 상한과 같이 편년과 직결되는 자료가 부족하여 설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남지방의 자료에 대비한 교차편년이나 중국이나 낙랑과의 대외 관계 기사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남지방 유물과 특성을 달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본래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 않은 교차편년이 더욱 의치않게 되며, 대외 교섭 기사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작은 오차가 기대되는 분기의 편년설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청당동 Ⅲ기의 유물에서 아직 백제토기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청주 송절동유적(車勇杰·趙詳紀 1994a; 車勇杰·趙詳紀 1994b; 車勇杰·趙詳紀 1995)의 토기이다. 송절동유적의 연대는 청당동 Ⅱ·Ⅲ기와 많이 겹치면서 이보다 늦은 시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적인 연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이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송절동유적의 토기들도 백제토기의 속성으로 지적되는 극히 일부의 양이부단경호나 경부돌대부호를(申鍾煥 1997, 46쪽; 咸舜燮 1998, 12쪽) 제외하면 아직도 원삼국토기의 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약간 앞서는 청당동유적의 하한을 3세기 중엽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청당동유적의 Ⅲ기의 중심연대는 3세기 전반이 되고, 이에 따라 청당동 Ⅱ기는 I기와 Ⅲ기 사이인 2세기 후반으로 설정된다.

VI. 분기별 변천 양상

1. 토기의 변화

1) 원저단경호

토광묘의 상대편년을 제시해주는 그림 6을 보면 원저단경호의 형식별 상대편년을 파악할 수 있다. I기에는 IV형식이 단일 종류로 나타난다. II기의 전체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은 II형식이다. I기에 출현했던 IV형식은 II기의 이른 시기까지만 있고, 이것이 사라질 즈음 V형식과 III형식이 나타난다. III기에 들어서면 I형식이 등장하여 전기간 동안 지속하며, 늦은 시기에는 VI형식이 새로이 나타난다. 한편 II기의 전기간 동안 존재했던

II형식과 후기에 출현했던 V형식은 III기에도 지속되다가 VI형식이 나타나는 시기에 사라지고, V형식과 함께 등장했던 III형식은 III기말까지 지속된다.

출현시기를 기준으로 형식별 상대편년을 정하면 IV→II→V·III→I→VI형식이고, 종말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IV→II·V→III·I·VI형식이 된다. 존속기간을 보자면 가장 빠른 형식이 IV형식이고, 가장 늦은 형식이 VI형식이며, 나머지 형식들은 중간 시기이면서 겹치는 폭이 넓다.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한 원저단경호의 형식별 상대편년은 IV→[II→V→III]→[I→VI] 정도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간에 겹치는 시기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원저단경호의 형식별 출몰양상을 볼 때 III기는 [1, 21, 22, 9, 16호]와 [17, 23, 15, 13호]로 세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년 가능한 토광묘의 수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세분은 자료가 증가할 때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분기별 단경호의 종류는 I기에 1가지(IV형식), II기에 4가지(II, III, IV, V형식), III기에 5가지(I, II, III, V, VI형식)이다. 그러므로 원저단경호는 II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해졌고, III기에 더욱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원저단경호의 특징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당동 원저단경호의 변화에 관해서는 동체의 종단면이 I기에는 배부른 말각방형, II기 전반에는 역삼각형, II기 후반에는 편구형, III기에는 구형이 주종을 이루며, 청당동 이후의 시기로 가면서 난형(卵形)으로 바뀌어간다는 견해가 있다(咸舜燮 외 1995, 126-128쪽; 咸舜燮 1998, 8쪽). 이 틀 속에서 고려된 것은 주로 동체부의 부푼 정도와 최대경의 위치로서 양자가 결합되어 있다. 먼저 부푼 정도의 경우 말각방형에 속한다는 토기는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청당동 시기에는 구형→편구형→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단선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변화양상은 그렇게 단절적이지 않고 공존양상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경의 위치도 기존의 견해대로라면 중앙→상부→중앙(혹은 약간 하부)의 변화가 제기되는데, 이것 역시 시기마다 확연히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의 속성 분석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그림 7), 최대경 위치 변화의 분기점이 부푼 정도 변화의 분기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종합보고서는 말각방형에서 구형으로의 동체부 변화 양상을 동체부 최대경 위치의 그래프와(咸舜燮 외 1995, 127-128쪽, 삽도 17) 관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대경의 위치는 동체 높이와 최대경 높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점들의 분포에 대해 회귀선을 그려보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점들이 동일 회귀선 주변에 있어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I기 토기들은 회귀선상

에 놓이게 되어 최대경의 상대 높이에서 다른 시기의 토기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고, 다만 토기의 전체 높이와 동체의 높이가 약간 클 뿐이다. 이 그래프에서 언급할 만한 점은 시기별로 독특한 동체부 형태이기보다는 II기 전반의 토기들 속에 동체 최대경이 다른 토기들 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앞에서 설정한 편년에 따라 원저단경호의 변화를 속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7). 먼저 동체부의 부푼 정도는 구형이 가장 먼저이고, 이어서 편구형과 심한 편구형이 III기 전반까지 공존하다가 이후에는 편구형으로 바뀌어간다. 최대경 위치는 중앙이 기본 유형이면서 상부에 위치한 것이 II기에 주로 나타난다. 목 길이는 짧은 것이 기본 유형이면서 다소 긴 것이 II기에서 III기 전반까지 존재한다. 목의 상대너비는 넓은 형태가 먼저 나타난 후, II기부터 III기 전반에는 넓은 목과 좁은 목이 공존하다가, III기 후반에는 좁은 목으로 대체된다. 구연은 꺾임이 없거나 약간 있는 것이 먼저 나타나고, II기에는 꺾임이 심한 것과 공존하다가, III기 전반에는 꺾임이 없는 것이 없어지고, 이어서 III기 후반에는 모두 꺾임이 심한 것으로 바뀌어간다. 구연 안쪽의 정면여부는 비교적 잘 구분된다. 편평한 구연이 I기와 II기의 주종인데 반해서, 안쪽이 오목하게 정면된 것은 III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표면 무늬의 경우, 縱集線과 橫線이 결합된 것, 그리고 格子文만 있는 것이 빨리 출현하고, II2기와 III기 전반에는 격자문과 횡선이 결합된 무늬가 추가되어 세 종류의 무늬가 공존하다가, III기 후반에는 종집선과 횡선의 결합무늬가 사라지고, 격자문 혹은 격자문과 횡선의 결합무늬가 주종을 이룬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전체 시기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무늬는 격자문과 횡선이 결합된 것이다.

속성의 분기별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구연 안쪽의 정면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속성들의 분기별 차이는 개략적인 경향이며, 상이한 속성들의 공존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이한 속성이나 형식의 토기들이 동일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특정한 속성 하나만으로 토기 혹은 분묘의 시기를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평저발

토광묘의 상대편년 결과를 토대로 평저발의 세 가지 형식들을 살펴볼 때 분기를 판별해줄 만한 뚜렷한 유형은 없다(그림 6). 그 대신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중간에 속하고 동체가 밋밋한 III형식은 I기에서 III기에 걸쳐 있고 갯수도 많아 가장 기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세장되고 동체가 약간 부풀은 I형식과 납작하고 동체가 밋밋한

Ⅱ형식은 Ⅱ기와 Ⅲ기의 이른 시기에서만 나타난다.

2. 철축의 변화

토기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된 철축은 편년 가능한 4기의 토광묘 13, 14, 18, 22호에서 모두 28점이 출토되었다. 철축의 종류를 보고서를 따라 無莖逆刺形, 柳葉形, 鑿頭形, 骨鏃形, 송곳形, 無莖菱形의 6가지로 분류하여 앞에서 제시한 편년에 따라 출토양상을 살펴보았다(표 3).

무경역자형은 출토량이 가장 많고, Ⅱ기와 Ⅲ기에 고르게 나타나 가장 기본적인 철축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유엽형으로 역시 Ⅱ기와 Ⅲ기에 고르게 출토된다. 착두형도 Ⅱ기와 Ⅲ기에 출토된다. 한편 골촉형과 송곳형은 Ⅱ기에만, 그리고 무경능형은 Ⅲ기에만 보인다. 그런데 청당동의 경우 철축은 전체 출토량 뿐 아니라 출토된 토광묘의 수효도 너무 작기 때문에 형태별 빈도 차이를 문화적 유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철축만으로는 토광묘의 순서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철축의 변화 추세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무경역자형이 가장 수효도 많은 Ⅱ기와 Ⅲ기의 주류이며, 유엽형과 착두형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는 점은 지적할만 하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무경역자형이나 유엽형에서도 형태적 변이가 관찰된다. 그렇지만 출토량이 너무 작아 철축 자체에 관한 연구가 아닌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한편 종합보고서에서는 18호를 2단계의 전반, 14호를 2단계의 후반으로 편년하여, 2단계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철축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咸舜變 외 1995, 149쪽). 그렇지만 이 글의 편년에서는 두 토광묘가 모두 Ⅱ기로 편성되었고, 출토량과 출토 토광묘 수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로 판단된다.

3. 토광묘 구조의 변화

청당동유적의 분묘들은 토광묘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크기나 목곽의 존재 여부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토광묘의 구조적인 특징 몇가지를 대상으로 시기별 변천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상대편년이 이루어진 토광묘는 18기로서 Ⅰ, Ⅱ, Ⅲ기에 각각 3기, 6기, 9기가 속해있다. 그렇지만 무덤마다 잔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된 토광묘의 수효는 분석 항목에 따라 달랐다

1) 묘광의 규모

묘광의 규모는 바닥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값으로 비교하였다. 종합보고서에서는 묘광 크기의 시기적 변화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묘광 장단비의 둔화가 묘광 규모와 반비례 관계에 있고, 장단비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하였다(咸舜燮 외 1995, 103-105쪽). 두 속성이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해서 왜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불확실하지만, 여하튼 주장된 장단비와의 관계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광 규모가 점차 증가한다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앞에서의 편년안에 따라 묘광 규모를 분기별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분기별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8). 물론 I기에서 III기로 가며 미세하게 커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의할만한 변화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작다. 다만 III기에 22호 목곽묘라는 이례적으로 큰 사례가 하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묘광의 장단비

종합보고서의 편년안에서 묘광의 장단비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종합보고서의 상대편년에서 1차와 2차 기준으로 원저단경호의 부장량과 유물의 부장위치가 이용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시기를 판별해주는 요소라는 근거를 묘광 장단비와의 상관관계에서 찾은 점에서 잘 드러난다(咸舜燮 외 1995, 113쪽, 116쪽). 장단비의 편년적 역할은 외형상으로도 분석과 관련된 그래프의 대부분에 묘광의 장단비가 수직 축에 나타나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편년이 가능하고 장단비가 확인되는 16기의 토광묘를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3:1을 경계로 I기와 II·III기로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9). 다시 말해서 세장한 형태(3.3:1)에서 평범한 장방형(2.6:1)으로 바뀌는 경향은 인정된다. 그러나 II기와 III기 사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묘광 장단비는 청당동 토광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II기와 III기 토광묘를 구분해내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점은 보고서의 편년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해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종합보고서에서 보여지는 편년기준으로서의 묘광 장단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이른 시기에는 묘광 장단비가 4:1에 가까운 것으로 상정하였는데(咸舜燮 외 1995, 105쪽), 장단비가 가장 큰 것은 4.57로 11호 뿐이며, 이 무덤에서는 특징을 파악하기 힘든 원저단경호 파편 1점과 평저발 1개가 나왔을 뿐이므로 시기 판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 세장된 것은 장단비가 3.59인 8호인데, 이 경우도 단경호가 완전하지 못해 편년에 어려움이 있다. 설혹 11호를 I기에 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4.57이라는 수치는 열외값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I기의 장단비는 3.0~3.5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3) 목관묘와 목곽묘

25기의 토광묘 중 목곽이 확인된 것은 14호, 20호, 22호이다. 목곽묘인 14호와 20호가 II기에 속한 것, 그리고 22호가 III기에 속한 것은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길이만 확인된 14호를 제외하고 20호와 22호 목곽묘 2기와 목관묘 19기의 묘광 규모를 비교하였다(그림 10). 결과를 보면 목관묘보다 목곽묘가 현저하게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호를 포함하여 묘광의 길이만 비교해 보아도 목곽묘가 목관묘 보다 대형에 속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묘광 크기의 비교에서도(그림 8) II기의 무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0호 목곽묘였다. 역시 II기인 14호는 묘광 폭을 알 수 없지만 4.03m인 길이만으로 보더라도 3.98m인 20호와 동급으로 역시 II기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III기의 목곽묘 22호는 길이 5.02m, 너비 2.37m, 면적 11.90m²로서 III기뿐 아니라 청당동 전체에서 가장 크다.

4) 목관의 형태

목관묘의 경우 판재를 이용해 짜맞춘 목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부장칸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단순한 상자형태가 기본형으로 수효가 절대적으로 많고, 전체 시기에 걸쳐있다(표 4). I기에는 이러한 단순상자형 목관만 있지만, 단벽을 연장시키거나 단벽을 장벽사이에 깊숙이 끼워 넣어 부장공간을 마련한 유형은 II기에 나타나 III기에도 지속된다. 이러한 점은 종합보고서에서 두 유형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지만 부장칸을 마련한 유형이 후행한다는 것(咸舜燮 외 1995, 111쪽)과 부합된다.

4. 토기의 부장위치

유물의 부장위치는 분묘 자료의 분석에서 주목을 받는 요소이다. 토기의 부장위치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東枕을 가정했을 때, 원저호가 발쪽이고 평저발은 머리쪽에 있는 것을 I 유형(보고서의 A형), 모두 발쪽에 있는 것을 II 유형(보고서의 C형), 모두 머리쪽에 있는 것을 III 유형(보고서의 B형), 원저호가 옆에 있고 평저발은 머리쪽이나 발쪽에 있는 것을 IV 유형(보고서의 D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별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I 유형은 I 기에만 있고, II·III·IV 유형은 II 기와 III 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표 5). 이 경우 I 기에 속하는 무덤이 5호 밖에 없어 II·III·IV 유형이 I 기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II 기와 III 기의 많은 토광묘에서 I 유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I 유형이 주로 청당동의 이른 시기에 국한되었다는 점은 지적할 만 하다. 그러므로 I 기에는 I 유형이 있었는데 반해, II·III 기에는 I 유형이 사라지고 II·III·IV 유형이 사용되었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편년체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분기별 사례수가 다르더라도 A형(I 유형)이 가장 선행하고 나머지가 대체로 후행한다는 종합보고서의 내용(威舜變 외 1995, 116쪽)과 동일하다. 이러한 시기적 변천 양상 때문에 토기의 부장위치는 종합보고서에서 상대편년의 기준으로 증시되었다. 그러나 토기의 부장위치는 대부분의 고분이 귀속된 II 기와 III 기 사이를 구분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편년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다.

5. 원저단경호의 부장량

앞에서 편년된 18기를 대상으로 분기별 단경호의 출토량을 비교하면 I 기는 모두 1점씩 부장된데 반해서, II 기와 III 기의 절대다수는 2점 이상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그리고 2점 이상 중에서도 4점 이상을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II 기와 III 기는 상호 별다른 차이가 없다. 종합 보고서의 편년안을 따르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원저단경호의 부장량은 II 기에 들어서면서 증가되었고, II 기와 III 기의 부장량은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종합보고서에서 상대편년의 1차기준으로 활용된 원저단경호의 부장량은 정작 중요한 II 기와 III 기를 분별해주지 못하므로 편년 기준으로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

6. 위계구조

고분 유적에서 위계구조를 파악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요소로는 고분의 구조적 특징으

로 규모와 부속시설의 정교함, 그리고 부장행위의 특징으로 장신구, 무기, 이기 등의 질적·양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위계구조의 분석에서 고려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구조적 특징 중 토광묘의 규모와 목곽 시설, 부장품 특징 중 구슬류, 帶鉤류, 토기, 환두대도, 철기 등의 수량과 다양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고서의 위계 분석에서도 이용되었지만, 종합보고서에서는 구슬류의 비중이 낮고 원저단경호의 개체수가 중시된데 반해서, 이번 분석에서는 구슬류의 비중을 중시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토광묘 규모를 보면(그림 8) I기에 비해 II기와 III기에서 격차가 증가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III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큰 토광묘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토광묘는 목곽만 있지만, 목곽이 시설된 예가 3개 있다. 이들 목곽묘는 II기와 III기에 있고, 이들이 각 분기의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부장품의 경우 모든 분기에서 차별성이 보인다(표 7). I기를 보면 5호에는 11점의 마형대구와 각종 구슬이 출토되어 기껏해야 원저단경호와 평저발이 1점씩에 불과한 12호, 6호와 뚜렷이 구분된다. 한편 II기의 14호와 20호는 목곽묘로서 구슬 장신구, 철제 무기, 농공구 등 풍부한 부장품으로 가장 주목된다. 다음 집단으로는 구슬류와 대구가 부장된 2호, 구슬류가 부장된 19호, 그리고 장신구는 없지만 환두대도와 철촉류가 부장된 18호가 있다. 나머지 24호는 소량의 토기만 부장되어 가장 빈약한 모습을 보인다. III기에서는 22호가 목곽묘로서 규모도 가장 크고 풍부한 부장품으로 단연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으로는 구슬류가 부장된 1호, 대구가 4점 부장된 9호, 대구 1점에 원저단경호 8점이 부장된 16호, 환두대도가 부장된 13호, 원저단경호 8점에 철기의 종류가 비교적 많은 편인 21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약간씩 특징을 달리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대등한 집단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장품이 단순한 15호, 23호, 17호가 남는데, 이 중 15호는 철모가 부장되었고 철기흔적이 있는 점에서 상위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정리한다면, I기의 고분 3기에 대해 2단계, II기의 고분 6기에 대해 3단계, III기의 고분 9기에 대해 3단계 정도의 위계구조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I기에 3단계, II기에 최대 4단계, III기에 최대 5단계의 위계 분화를 논하였다(威舜燮의 1995, 160-165쪽). 똑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의 무덤이라도 위계의 간접적 징표가 완전히 같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보고서의 편년을 따르면 각 분기에 속한 고분의 수효가 I기가 10기, II기가 7기, III기가 7기이다. 따라서 위계의 수효를 시기별로 3, 4, 5단계로 하게 되면, II기와 III기의 경우 각 단계에 한두 기의 고분이 속하게 된다. 이것은 집단의 추출이라기보다는 개별적 차별화에 가

값다. 분기마다 10기에 못 미치는 작은 표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계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기 어렵고, 더구나 유구의 보존 상태도 완전하지 못한 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원저단경호 8점이 출토된 무덤과 원저단경호는 3점이지만 환두대도가 1점 출토된 무덤 중 어느 쪽이 높은 신분인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존 상태도 완전하지 않고 수효도 작은 청당동 자료를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기준에 의하든 현재의 청당동 자료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위계단계의 수효는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증감을 살피는 비교 수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청당동의 위계구조는 I기에서 III기로 가면서 계급구조가 더욱 분화되었고, 최상급 집단의 우월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정도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청당동 유적은 다섯 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풍부한 자료가 알려졌고, 종합보고서의 상세한 고찰을 통해 문화상의 내용도 면밀하게 연구된 바 있다. 그 결과 청당동 유적은 중서부지역의 원삼국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청당동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당동 자료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글의 분석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상대편년으로 원저단경호의 속성을 편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속성을 기준으로 원저단경호를 6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저단경호 형식이 출토된 토광묘를 대상으로 다차원척도법과 순서배열법을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편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편년을 기준으로 하여 원저단경호가 한 가지 형식만 출토된 토광묘의 시기를 판정하였다. 결국 18기의 고분들은 3개의 분기로 나뉘어졌다. 이 글의 상대편년을 종합보고서의 상대편년과 비교해 보면 각 분기의 토광묘 편성은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원저단경호의 속성을 중시하고 이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편년의 작성 절차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II기와 III기 내에서의 토광묘들의 상대편년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편년안을 통해 원저단경호와 평저발의 형식별 상대편년을 살펴보았다. 원저단경호는 형식별로 어느 정도 시간적 서열이 찾아졌다. 이와 더불어 구연 안쪽의 정면 여부, 동체부의 형태 등 원저단경호의 여러 속성들의 상대 편년도 살펴보았다. 한편

세 가지로 분류된 평저발의 형식들은 뚜렷한 시간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분의 구조적 특징, 유물의 부장방식, 위계구조 등에 대한 분기별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묘광의 일반적 규모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묘광의 장단비, 목관의 형태, 토기의 부장 위치, 원저단경호의 부장량 등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합보고서에서 이들 요소의 상당부분이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토광묘 편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이 글의 분석 결과 이들의 변화는 I기와 II기 사이에서만 국한되고, II기와 III기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위계구조의 경우 아직 각 분기에 속하는 토광묘의 수효가 작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불완전하여 세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I기는 2단계, II기와 III기는 3단계 정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II기에서 III기로 가면서 위계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III기의 목곽묘가 이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인정된다.

청당동유적의 발굴을 통해 원삼국문화의 성격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지식은 다른 유적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만 청당동의 문화상에 대해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인접지역에서 새로운 자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한 세밀한 분석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중서부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徐五善·權五榮, 1990. 「천안 청당동유적 발굴조사보고」 『休岩里』, 국립중앙박물관.
- 徐五善·權五榮·咸舜燮, 1991, 「天安 淸堂洞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松菊里Ⅳ』, 국립중앙박물관.
- 徐五善·咸舜燮, 1992. 「天安 淸堂洞 第3次 發掘調査報告書」 『固城貝塚』, 국립중앙박물관.
- 成正鏞, 1998. 「3~5세기 錦江流域 馬韓·百濟 墓制의 樣相」 『3~5세기 金강유역의 고고학』, 61-104, 韓國考古學會.
- 申鍾煥, 1997. 「忠北地方 三韓·三國土器의 變遷-遺蹟의 編年的 相對序列을 提示하며」 『考古學誌』 8, 25-65.
- 李南珪, 1998. 「3~5세기 錦江流域圈 鐵器의 地域的 特性-農工具와 武器를 중심으로」 『3~5세기 金강유역의 고고학』, 23-60, 韓國考古學會.
- 車勇杰·趙詳紀, 1991. 『鎭川松斗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 車勇杰·趙詳紀, 1994a. 「淸州 松節洞 古墳群-1次 '92年度 發掘調査報告書」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車勇杰·趙詳紀, 1994b. 『淸州 松節洞 古墳群』, 忠北大學校博物館.
- 車勇杰·趙詳紀, 1995. 『淸州 松節洞 發掘調査報告書-1993年度 發掘調査』, 忠北大學校博物館.
-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38, 105-145.
- 韓永熙·咸舜燮, 1993. 「天安 淸堂洞 第4次 發掘調査報告」 『淸堂洞』, 국립중앙박물관.
- 咸舜燮, 1998. 「錦江流域圈의 馬韓에서 百濟로의 轉換-墳墓出土 土器를 중심으로」 『3~5세기 金강유역의 고고학』, 1-21, 韓國考古學會.
- 咸舜燮·金在弘, 1995. 「天安 淸堂洞遺蹟 I 段階 調査報告」 『淸堂洞 Ⅱ』,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 원저단경호의 형식

그림 2. 평저발의 형식

그림 3. 토광묘의 다차원척도법 적용 결과

	壺Ⅳ	壺Ⅱ	壺Ⅴ	壺Ⅲ	壺Ⅰ	壺Ⅵ
20호	I	I				
14호	I		I	I		
2호		I		I		
21호		I	I	I	I	
22호			I	I	I	
16호		I	I	I	I	I
15호				I	I	I
13호					I	I

그림 4. 토광묘의 순서배열법 적용 결과

그림 5. 비교된 원저단경호 각종

①5호 ②6호 ③12호 ④20호b ⑤14호j ⑥18호a ⑦18호j ⑧19호a ⑨19호b

⑩24호b ⑪2호b ⑫20호a ⑬21호f ⑭1호a ⑮14호c ⑯17호 ⑰23호a ⑱23호b

⑲15호b ⑳16호g ㉑9호 ㉒16호e

분기	고분	壺Ⅳ	壺Ⅱ	壺Ⅴ	壺Ⅲ	壺Ⅰ	壺Ⅵ	鉢Ⅲ	鉢	Ⅱ
	鉢Ⅰ									
Ⅰ	5호	I						I		
	6호	I								
	12호	I						I		
Ⅱ	20호	I	I							I
	14호	I		I	I					
	18호		I					I		
	19호		I							
	I									
	24호		I							
	I									
	2호		I		I					I
Ⅲ	1호					I				
	I									
	21호		I	I	I	I				
	I									
	22호			I	I	I				I
	9호			I						
	16호		I	I	I	I	I	I		
	17호							I	I	
	23호							I	I	
	15호				I	I	I	I		
13호					I	I				

그림 6. 토광묘의 편년 (굵은 글씨는 앞에서 상대편년된 고분)

그림 7. 원저단경호의 속성 변천

그림 8. 분기별 묘광 규모

그림 9. 분기별 표광 장단비

그림 10. 목관묘와 목곽묘의 표광 규모

	B1	B2	N1	N2	L1	L2
I 형식	2, 3	1	2	1	2	모든 특징
II 형식	2, 3	2	2	모든 특징	2, 3	1
III 형식	2	1	모든 특징	2	2	2
IV 형식	1	1	1	모든 특징	2, 3	1
V 형식	2	1	1	1	2	모든 특징
VI 형식	2	1	1	1	3	2

표 1. 원저단경호의 형식별 특징

	B1	B2
I 형식	3	2
II 형식	1	1
III 형식	2	1

표 2. 평저발의 형식별 특징

	無莖逆刺形	柳葉形	鑿頭形	骨鏃形	송곳形	無莖菱形
14호(Ⅱ기)	7	2	2	1	2	
18호(Ⅱ기)	1	1	1			
22호(Ⅲ기)	3	5	1			1
13호(Ⅲ기)	1					

표 3. 철촉의 변천 양상

	단순상자형	부장칸마련
I기	3	0
II기	2	2
III기	5	2

표 4. 목관의 형태

표 5. 토기의 부장 위치

표 6. 원저단경호의 부장량 (괄호안의 숫자는 4점 이상 부장된 고분 수)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I 기	1	0	0	0
II 기	0	4	1	1
III 기	0	5	2	1

	1점	2점 이상
I 기	3	0 (0)
II 기	0	6 (2)
III 기	2	7 (3)

분기	분묘	장신구			토기				철기									
		구슬			대구	단경호	평저발	기타	환두대도	환두도자	소도자	모	촉	검	부	착	파비	기타
		마노	금박	유리														
I 期	5호	○	○	○	11	1	1											
I 期	12호					1	편											
I 期	6호					1	?											

분기	분묘	장신구			토기				철기									
		구슬			대구	단경호	평저발	기타	환두대도	환두도자	소도자	모	촉	검	부	착	파비	기타
		마노	금박	유리														
II 期	14호	○	○	○		5	편		1	1	1	4	동 14 점	편	3	2		
II 期	20호	○		○	1	2	1				1			1	1			1
II 期	2호	○	○	○	1	3	1				1							1
II 期	19호	○		○		2	1				1				1			
II 期	18호					4	1		1			1	동 점		1			
II 期	24호					2	1											

분 기	분 묘 호	장신구			토기				철기									
		구슬			대 구	단 경호	평 저 발	기 타	환 두 대 도	환 두 도 자	소 도 자	모	총 점	검	부	착	파 비	기 타
		마 노	금 박	유 리														
Ⅲ 期	22 호	○				6	1	1	1		2	7	총 10 점	1	2	1		4
Ⅲ 期	1호	○		○		2	1							1				
Ⅲ 期	9호				4	1	?											
Ⅲ 期	16 호				1	8	1							환	1			
Ⅲ 期	13 호					3	?		1				1				1	
Ⅲ 期	21 호					8	1							1	1			1
Ⅲ 期	15 호					3	1				환	1						
Ⅲ 期	23 호					2	환											
Ⅲ 期	17 호					1	1											

표 7. 토광묘의 출토 유물 (주구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제외하였음)